

“통합진보 비례 경선 총체적 부정”

당 조사위 규정, 투표용지 한꺼번에 여러장... 직인없는 용지도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이 부실 및 부정선거로 규정됐다.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 조준호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의 뜻과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에게 질타 받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조사 결과 비례대표 후보 선거가 선거관리 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당 조사위가 경선을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로 규정함에 따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계파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는 전날 밤 긴급 회동을 갖고 이런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당권파인 이 대표 측은 진상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날 발표는 당권파를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비당권파들은 조직적인 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당권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을 보면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정 투표와 관리 부실이 곳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투표 = 조사위는 전체 200

여개의 투표소 가운데 3분의 1 가량의 투표소를 조사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부정선거 흔적을 발견했다. 조 위원장은 “다수 투표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행위 등 선거관리 당규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투표 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투표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여곳 가운데 7곳의 현장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경우가 있었고, 투표용지가 한 장씩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

에 몇 장이 들어가 있거나 투표 관리자의 직인이나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투표 = 선거 관리 업체가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는) 소스코드를 열어본 사실이 확인됐다. 온라인 투표에서 프로그램 수정은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같다. 여기에 기표오류를 수반한 결함도 발생해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데이터를 수정하기도 했고, 동일한 IP에서 여러 명이 투표를 한 사실도 드러나 대리투표 등의

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또 온라인 투표에 필수적인 ‘형성관리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어졌다. 형성관리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열어볼 경우 어떤 작업을 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 관리 능력에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무총국 직원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수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 조준호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고생 10명중 1명 “가출경험”

청소년 37% “아침 안 먹는다”

2012 청소년 통계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 비중은 정점을 찍은 1978년의 55% 수준으로 급감했고 학령인구는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인구, 교육, 노동 등 분야별 청소년의 모습을 조망하려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성한 ‘2012 청소년 통계’를 2일 발표했다.

이 통계를 보면 청소년은 10명 가운데 7명꼴로 공부와 직업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8.8%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의 37.4%는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다. 만화방·오락실·DVD방 이용률은 떨어졌으나 청

■ 부모님과 하루 대화시간(2011) (단위: %)

	전혀안함	30분미만	30분~1시간	1~2시간	2시간이상	해당없음
아버지	6.8	42.1	21.7	11.3	12.6	5.5
어머니	2.5	22.4	26.8	18.2	27.0	3.1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문제	2002	2010
공부	39.8	38.6
직업	6.9	22.9
외모·건강	19.7	16.4
가정환경	8.9	9.1

으로 전망됐다. △체력 커졌으나 건강관리는 소홀=2010년 기준 학생들의 키는 10년 전보다 커졌다. 증가폭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2.1cm, 중학교 3학년 남학생 1.7cm다.

15~24세 청소년 가운데 37.4%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으며, 73.1%는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민거리는 공부(38.6%)와 직업(22.9%) 순으로 높았다. 2002년 공부(39.8%)와 외모·건강(19.7%)을 많이 걱정했던 것

“자살 생각해 본 적 있다” 8.8%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 72%

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 유해매체 이용률은 늘어났다.

◇청소년 인구 1978년 이후 계속 감소=2012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000만4000명으로 2010년보다 1.2% 증가했다. 그러나 9~24세 청소년 인구는 1019만7000명으로 2.6% 감소했다.

청소년 인구 비중은 20.4%로 1978년 36.9%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한 때문이다.

6~21세 학령인구는 959만5천명으로 2010년 1001만2000명보다 41만7000명 줄었고 감소세가 이어져 2060년에는 11.1%에 그칠 것

과 대조적이다.

15~24세 청소년의 8.8%는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자살 충동을 느꼈다. 그 이유를 보면 15~19세는 성적·진학문제(53.4%), 20~24세는 경제적 어려움(28.1%)과 직장문제(15.8%)다.

청소년 사망 원인은 자살이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2009년 15.3명에서 2010년 13.0명으로 감소했다.

◇학교생활 만족 44%...국가기관 취업 선호=2010년 15~24세 중·고·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다. 교육방법은 36.8%, 교사(교수)와의 관계는 43.5%가 만족했다.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1.7%다. 초등학생은 84.6%로 중학생(71.0%)과 일반고생(58.7%)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늘어났다. 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학생은 35.3만 사교육을 받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다. 중학생 26만2000원, 일반고생 25만9000원, 초등학생 24만1000원이다.

◇10대 청소년 98%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사용=2011년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97.8%로 2010년 97.3%보다 0.5%p 증가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은 보면 고등학생은 블로그와 미니홈피가 94.3%로 가장 많았다.

10~19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0.4%다.

중·고등학생의 가출경험은 10.2%다. 주원인은 부모님과 갈등(51.3%), 높고 싶어서(29.2%), 자유로운 생활 하고 싶어서(25.5%) 순이다. /연합뉴스

고유가 시대 맞아?

지나해 하루 평균 교통량 최고치 경신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나해 주요도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2890대로 집계돼 전년(1만2733대)보다 1.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량 조사를 시작한 1955년 이후 최고치다.

일 교통량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 당시 일시적으로 감소(-2%)했지만 이듬해부터 꾸준히 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교통량이 가장 많이 늘어 1.6% 증가했다. 버스는 1.4%, 화물차는 0.4% 증가했다.

도로유형별로는 고속국도와 지방도로의 교통량은 1.8%, 2.8% 각각 늘었다.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달은 8월(1만7천222대)과 10월(1만6천 658대)이었다. 연휴와 휴가철 영향이 컸다. 여행객이 많이 찾는 강원도의 경우 6~8월, 10월에 교통량 증가세가 뚜렷했다. /연합뉴스

“北 핵무기 개발 최소 68억달러 추정”

주민 8년치 배급량

북한이 현재까지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부은 돈이 68억8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내 핵 전문가가 2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80년대 이후 북한이 핵시설 건립과 가동에 들인 비용을 중국산 옥수수 구매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940만톤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는 현재 배급량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약 8년치 배급량에 해당하며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량이 연 40만톤임을 고려할 때 핵개발 비용으로 약 50년치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 비용은 채광·정련시설, 영변핵단지, 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 건립에 약 20억1000만 달러, 핵기술 연구개발에 3억1000만 달러, 핵시설 가동에 27억2000만 달러, 핵무기 개발에 13억4000만 달러, 핵실험에 2억달러 가량이 소요됐을 것으로 이 전문가는 추정했다. /연합뉴스

국내산 배추 ‘Kimchi Cabbage’로 국제적 등재

‘Chinese Cabbage’서 독립

국내산 배추가 국제적으로 ‘Kimchi Cabbage’로 등재되고 감과 대추는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인과류와 핵과류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

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Codex회의에서는 국제 식품 분류 상 ‘Chinese Cabbage’에 속해있던 국내산 배추를 ‘Kimchi Cabbage’로 분리해 등재하는 우리 대표단의 제안이 채택됐다.

또 참취, 참나물, 참속 등 국내산 나물은 ‘Cham-chwi’, ‘Cham-na-mul’, ‘Cham-ssuk’처럼 한국명으로 등재

되는 제안도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열대과일로 분류됐던 감과 대추를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인과류와 핵과류로 분류하는 데도 성공했다.

감과 대추는 열대과일로 분류돼 있어 농산물 수출 시 ‘잔류 농약 불검출’이라는 기준을 적용받았다. 따라서 감과 대추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는데 장애가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국내산 감과 대추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이점 특허등록: 3개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원경매정보대한국대표사이트!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이 함께하는!

검색 | 다와옥션 |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주택

- 광산구 월곡동 3층다가주택 대지68평 건평150평 김정기2억4천6천 원 최저가1억9천8천 원
- 영광군 영광읍 2층주거 상가주택 대지153평 건평90평 김정기2억 원 최저가1억1천만 원

단독주택

- 서구 농성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70평 건평81평 김정기2억7천만 원 최저가1억9천만 원
- 서구 화정동 2층주택 대지70평 건평56평 김정기1억8천만 원 최저가1억2천만 원
- 광산구 산정동 2층주택 대지63평 건평71평 김정기1억8천만 원 최저가1억3천만 원

전원주택부지

- 봉산면 대추리 관리지역 대지622평 김정기1억3천 원 최저가16천4백만 원
- 화순읍 연암리 주거지역 대지290평 김정기4천5백만 원 최저가3천2백만 원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광산구 대산동 관리지역 전망 좋은 처형진입가능 백일홍식재(포함매매가) 매매 8천만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 전남경찰청 4거리)

(주)광주디지털미디어시티 토지 매각 공고

지식산업시설용도

광주 북구 오동동 1110-14번지

토지 대 13,826.6㎡
건물
일반철골조 판별경사지붕 단층
교육연구시설 310.49㎡

부속건물

철골조 판별경사지붕 단층 제품전시장326.48㎡
철골조 판별경사지붕 단층 창고326.48㎡
철골조 판별경사지붕 단층 창고326.48㎡

보 19,000만 / 월500만

매각금액: 금사십칠억(₩4,700,000,000)원

상기 목적 부동산은 비임무용 부동산으로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②항에서 명기한 지식산업 영위 업체에 한하여 매각 공고 합니다.

T. 062) 972-8124 H. 010-2022-8124 F. 973-8124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워서 수익 내실 분
- 배워서 투자가능 / 회비 330만원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투자자 모집 /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입찰대리

- 확실하게 입찰 대리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 매수 입찰대리 법원인가

오천경매 H.010-4667-9300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영서점내)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델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입합니다.

각 지역의골프장 및 예식장을 급매로 찾습니다.

매수 매도 대기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범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라남도 등 지역의 부자가 차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양화 보유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 공매)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취향에 정리에 드릴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범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품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 푼 쟁가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무소, 모델,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무나(매매)

지역 # 광주 신안동 (사무나 현 상임중) 면적 # 대지 2억9000평, 건평 : 2500평
지역 # 첨단지구 월계동 (무인텔 공매) 면적 # 대지 : 338평, 건평 : 440평 객실 : 22실
지역 # 관천(미분) 부근 모달하우스(사용가능) 면적 # 대지 : 약1000평, 건평 : 2803평
지역 # 수안지구 롯데아파트근처 빌딩상가 매매 및 분양 중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 # 담양 1만평~2만평이상 5만평~10만평
지역 # 정성 1만평~5만평 (각 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